

이윤택 공연대본전집 1

초판 1쇄 인쇄 • 2006년 3월 6일
초판 1쇄 발행 • 2006년 3월 13일

편저자 • 서연호 • 김남석

발행인 • 박 성 복

발행처 • 도서출판 연극과인간

서울시 강북구 수유2동 252-9

등 록 • 제6-0480호

등록일 • 2000년 2월 7일

전 화 • (02) 912-5000

팩 스 • (02) 900-5036

<http://www.worin.net>

E-mail : dramain@kornet.net

ISBN 89-5786-113-0 04680 (세트)

ISBN 89-5786-114-9 04680

값 7,500원

- 이 전집에 수록된 작품 저작권은 연희단거리패에게 있습니다.
- 이런 나의 입장에 동의해 준 나의 가족들에게 이 전집을 바칩니다.
- 이 전집에 수록된 대본으로 공연을 하고자 하는 공연단체는 연희단거리패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잘못된 책은 구입하신 서점이나 본사에서 바꾸어 드립니다.

작가 서문

20여년 남짓한 연극작업을 통해 16편의 창작극, 15편의 재구성대본, 4편의 재창작극을 남긴다. 물론 이 중에는 신춘문에 최종심에서 낙방한 단막극이나 당선작 없이 입상한 장막희곡도 포함되어 있다. 개중에는 공연되지 않은 창작극대본도 있다. <오구> 대본은 아예 초고와 수정고를 같이 수록했다.

15편의 재구성대본은 나의 연출적 관점으로 고쳐 쓴 대본이다. 여기에 대한 나의 관점은 분명하다. 창작극은 문학 텍스트로 영원히, 그리고 온전하게 기록되고 남는다.

그러나 현대 극예술에 있어서의 희곡 텍스트는 연출가의 해석과 상상력에 의해 다양한 공연양식으로 드러날 수 있다. 그러므로 재구성대본은 결코 원작을 훼손하거나 폄하하려는 의도와는 무관한 작업이다. 재구성대본의 의미는 원작을 연출가와 배우, 무대 예술가들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표현하려 했는가 하는 점에서 귀중한 공연사적 기록일 수 있다는 점이다.

재창작극의 기준은 소설이나 고전극을 원작으로 한 각색 작업이 더욱

발전하여 거듭 태어나는 창작대본으로 평가 받을 수 있는 경우이다.

이런 작업을 통해 나는 20여년 동안 35편의 공연대본을 쓴 셈이다. 이 중에서 문학적 평가를 받는 것은 받는 것대로 남을 것이고, 공연을 위한 대본으로 계속 유용한 것은 그 나름의 의미를 지닐 것이다.

그 점에서 이 혼잡스러운 전집의 의미는 혼잡스러운 그대로 나의 글쓰기와 연극 만들기의 현장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어 준다는 것이다. 극작가로서의 문학적, 그리고 연극적 의미 매김은 극작가 스스로가 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흘러 지나가는 세월의 시간을 견디면서 계속 동시대의 연극으로 공연되어야 제대로 문학적, 혹은 연극적 평가를 받는 것이 희곡의 특성이니까, 그런 엄청난 정리는 시간에 맡긴다.

희곡은 공연되기 위해 존재하는 문학이므로 분명 극작가 개인적 소유물은 아니라고 본다. 특히 나의 연극적 글쓰기는 나와 함께 살면서 작업해 온 연희단거리패가 같이 버텨주지 못했다면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 전집 또한 연희단거리패 창단 20주년에 맞추어 출간된다. 나는 공연 예술의 독자적 성격과 미학적 수준을 결정짓는 것은 배우와 연출가와 극작가보다 더 극단이 중요하다고 믿는 입장이다. 배우나 극작가 연출가의 존재 또한 극단이라는 연극적 뿌리에서 뻗어 나오는 꽃가지일 것이다. 꽃은 지고 다른 가지에서 또 다른 꽃을 피우지만 뿌리는 여전히 흙과 함께 백년을 버틴다. 이 전집 또한 연희단거리패와 함께 한 백년 버텨 주기를 바란다.

2006. 2. 14.

밀양연극촌 연극실험실에서

작가 이 윤 택

《이윤택공연대본전집》이 만들어지기까지

이윤택이 연출한 <너우>(2004년)를 관람하면서, 이제 그를 정리할 필요가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더 이상 거칠고 낯선 한국 연극계의 이방인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가 없었으면 한국 연극계가 대단히 허전했을 것이라는 느낌마저 감돌 정도로, 우리는 그의 연극을 신뢰하고 있었다. 우리는 그에게 공연대본전집을 제의했고, 그는 역시 우리를 신뢰하며 그 제의를 받아들였다.

이미 《오테석공연대본전집》을 만들면서 한 사람의 극작 세계를 정리하는 작업에 적지 않은 난관과 혼란이 있음을 알았지만, 이윤택의 경우에도 역시 오테석에 못지않은 혼란과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다. 일단 대상 작품의 확정이 문제였다.

이윤택은 폭넓은 공연대본을 제시했다. 이 중에는 원작의 유무 혹은 원작의 변형 정도에 따라 기존의 시각으로는 논란이 될만한 작품도 상당했다. 이윤택과 여러 차례 상의하면서, 그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절충될 수 있는 지점을 찾아갔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기준이 다 다르듯이,

그와 우리가 가진 공연대본에 대한 기준은 처음부터 상이할 수밖에 없었다.

절충 과정에서, 거꾸로 이운택이 제외시킨 작품 중 몇 작품을 발굴하여 새로 끼워 넣기도 했다. <新할미전>이나 <아름다운 남자>가 그러한 경우이다. 특히 <아름다운 남자>가 새롭게 발굴되어(?) 세상의 빛을 보게 된 것은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여기서 공연대본으로 결정하고 정리한 기준을 밝히겠다. 일단 이운택의 독자적인 집필은 ‘창작극’으로 간주했다. 이것은 명확한 이운택의 창작이다.

그 다음은, ‘재창작극’이다. 이운택은 시, 소설 등의 기존 작품을 변형하거나 결합하면서 새로운 텍스트를 만들어 낸 바 있다. 실령 원작이 희곡일지라도, 상당히 변형하여 새로운 희곡 텍스트로 변형하기도 했다. 이것은 ‘재창작극’으로 분류하고 공연대본으로 간주했다.

마지막은 ‘재구성대본’이다. 재구성대본은 기존의 원작이 희곡인 경우인데, ‘우리극화’하고 ‘무대화’하는 과정에서 그 변형 정도가 ‘재창작극’에 비해서 미약할 때 ‘재구성대본’으로 칭했다. 이운택은 연극에서 말(대사)이 명확하게 들리는 것을 중시한다. 명확하게 들린다는 기준은 단순히 청각적인 선명함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말 어법에 맞아야 하고, 배우들이 발화할 때 무리가 없어야 하며, 문어적인 말이 아니라 구어적인 말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배우들이 발화하는데 문제가 되고 안 되고는 이운택 연극(연출)에서 중요한 사항이다. 이운택은 기존의 대본을 자신과 함께 연극을 만드는 사람들의 ‘입에 맞추는’ 작업을 중요시했고, 그 과정에서 이운택의 공연대본들은 새로운 언어의 세례를 입게 되는 셈이다.

물론 언어적 변형만을 재구성대본의 요건으로 삼은 것은 아니다. 장면의 축약과 변형 혹은 확장도 재구성이나 아니냐를 가리는 기준으로 삼았

다. 가령 오태석의 <비닐하우스>나 이강백의 <느낌 곡락같은>은 이운택 작품 중에서 호평을 받은 바 있으며 재구성 논란을 불러 온 작품이지만, 이운택의 공연대본이 될 수는 없었다. 두 작품 모두 장면의 변형 의지는 부재했다. 더구나 재구성하겠다는 의지로 공연을 추진한 경우도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 셰익스피어나 월리의 경우는 이운택의 의지로 작품의 상당 부분을 변형, 재구성함을 미리 천명했고, 실제 공연에서도 이운택의 이러한 의도가 살아났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재구성대본에 포함시켰다.

다시 정리하면, 공연대본이란 희곡작가의 입장을 넘어서서 공연연출자의 입장에 근접했을 때 발생하는 개념이다. 원작의 유무나 변형 정도를 가리는(가늠하는) 기준은 공연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그러한 관련 정도에 따라 한 작가(연출가)의 작품 세계를 결정하는 일종의 경계선(범위)이 마련될 것이다.

공연대본을 수록할 때는 두 가지 원칙에 의거했다. 하나는 집필된 연도 순서로 작품을 수록했다. 공연이 된 경우는 초연 일자에 의거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초연의 재구성 정도가 미약하여 초연보다 뒤늦게 시행된 공연 일자를 수록 대본의 기준일로 삼은 경우도 있다. 공연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집필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일로 삼았다. 여러 작품이 동시에 집필된 경우도 있는데, 그 때 역시 초연의 공연일을 기준으로 삼았다. 창작 대본의 맥락과 작가 의식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본격적으로 데뷔하기 이전의 작품도 수록했다.

다른 하나는 기준일이 확정된 공연대본은 가급적 최근 판본으로 수록했다. 가령 <문체적 인간 연산>은 초연 대본이 아닌 2003년 국립극단 대본을 수록했고, <마보각시>는 공연대본전집이 출간되기 직전에 정리한 최신판으로 수록했다. <오구>의 경우에는 작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크게 수정되기 이전과 이후의 두 판본을 모두 수록했다. 작품의 제목

역시 집필이 완료될 시점과 달라진 경우가 있다. 작가의 최근 입장을 고려하여 작품 제목 역시 조정했다. 작품의 제목이 조정된 경우에는 작품 연보에서 그 사실을 밝혔다.

집필(공연)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삼되 세부적인 내용이나 제목에 작가의 최근 의사를 준중한 것은, 공연대본의 특징을 부각시키기 위함이다. 우리는 여기에 실린 공연대본이 이운택의 가장 마지막 그리고 가장 완성된 판본이라고 믿지 않는다. 공연대본은 공연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소극장 공연에서 빛을 보던 <아름다운 남자>의 공연대본이 대극장 공연에서도 똑같이 빛을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아마 적지 않은 부분이 바뀌어야 되고, 새로운 공연장에 적응하기 위해서 또 달라져야 할 것이다. 여기에 배우, 의상, 조명, 관객 등의 여러 가지 공연 상황을 고려하면 그 변이 정도는 추정을 불가능하게 한다.

다시 말해서 공연대본은 확정될 수 없다. 셰익스피어도 살리도 위대한 작가이지만, 그들의 작품이 예나 지금이 똑같이 공연될 수는 없다. 이운택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의 공연대본은 영구불변한 정전이 아니라, 언제든지 가변적일 수 있는 텍스트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운택의 작품이 계속 공연되면서, 수많은 그리고 새로운 판본이 만들어지기를 우리는 희망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공연대본전집을 보면서, 이운택과 우리 편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해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언젠가 이운택의 공연대본전집에 실린 텍스트를 더 근사하게 그리고 더 의미 있고 유연하게, 재구성한 누군가의 공연대본이 나오면 더욱 좋을 것이다.

이 대본전집을 만드는 데에 수고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 먼저 이운택의 작품을 읽고 작품 해설을 쓴 홍창수, 김미도, 김유미, 이철우, 장원재, 임준서 교수들에게 깊이 감사한다. 그들은 바쁜 와중에서도 자신의 일을

미루어두고 이운택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우리는 그들의 노력이 계속되어, 변함없는 애정으로 이운택을 읽고 연구하고 또 사랑하기를 희망한다.

번거로운 교정 작업을 도와준 이들도 빼놓을 수 없다. 이상은, 최영희, 최승연, 정명문, 황윤하, 문선영, 이경숙 등에게 심심한 감사를 전한다. 이 원고와 연보를 일차 정리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제공해 준 연희단거리패와 배우 김소희에게도 별도로 감사를 드린다. 그들과 우리는 서로 협조해서 즐겁고 의미 있는 일을 한 셈이다. 마지막으로 출판계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10권에 해당하는 막대한 출판을 쾌히 승낙하고 3년에 육박하는 출판 과정에 쓰다달다 한 마디 말도 없이 임해 준 박성복 사장님과 최형필 상무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2006년 2월 눈이 많이 내린 날

편저자

10/20/23

10/20/23



10/20/23

목차

작가 서문

<이윤택공연대본전집>이 만들어지기까지

추방

삼각파도

간(間)

新활미전

시민K

공연 연보

01
24/11/20



목차

작가 서문

〈이윤택공연대본전집〉이 만들어지기까지

오구-죽음의 형식

청부

혀

맥베드

역사의 눈, 광대의 열정, 시(詩) 정신 - 서연호

10/25/20

10/25/20

10/25/20

10/25/20



10/25/20

목차

작가 서문

<이운택공연대본전집>이 만들어지기까지

불의 가면-권력의 형식

바보각시-사랑의 형식

돌이전

우리 시대의 리머왕

소돔의 비판 예술가 L - 홍창수

Many people
believe that
the world is flat



the world is flat

the world is flat

the world is flat

the world is flat

목차

작가 서문

〈이윤택공연대본전집〉이 만들어지기까지

청바지를 입은 파우스트

문제적 인간 연산

사랑에 속고 돈에 물고

서양고전의 해체, 한국적 햄릿, 그리고 대중극 - 김미도

11/11/11



11/11/11

11/11/11

11/11/11

11/11/11

목차

작가 서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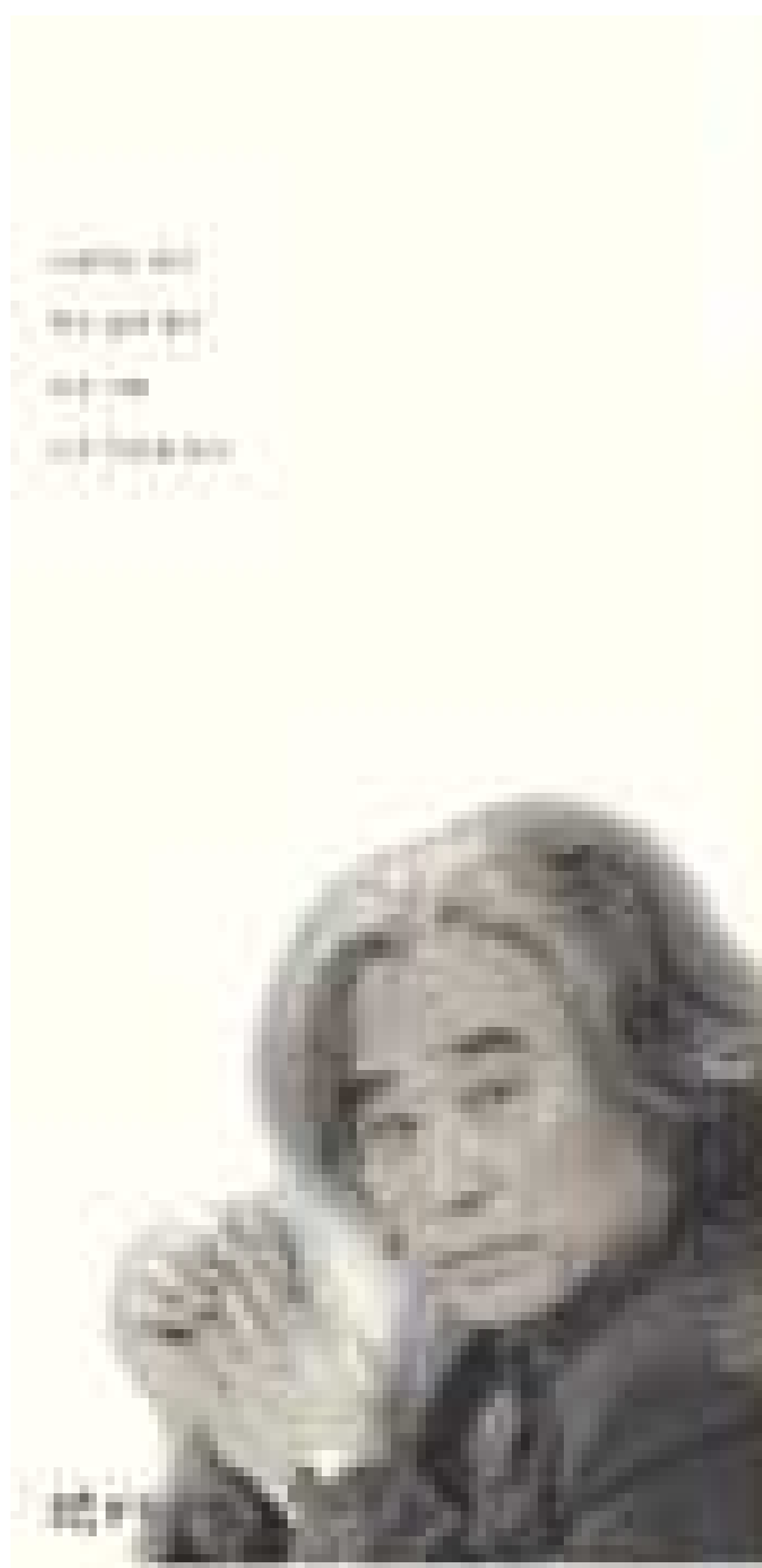
<이윤택공연대본전집>이 만들어지기까지

우리에게 또다른 정부가 있다

어머니

햄릿

세 갈래 길 - 김유미



10/11/20
100 cm
6

목차

작가 서문

<이윤택공연대본전집>이 만들어지기까지

아름다운 남자

연극-삶의 형식

꿈의 기록

오구-죽음의 형식

놀이로의 귀향, 혹은 전향 - 임준서

01
15/2/23

10/11/2023
7



10/11/2023
7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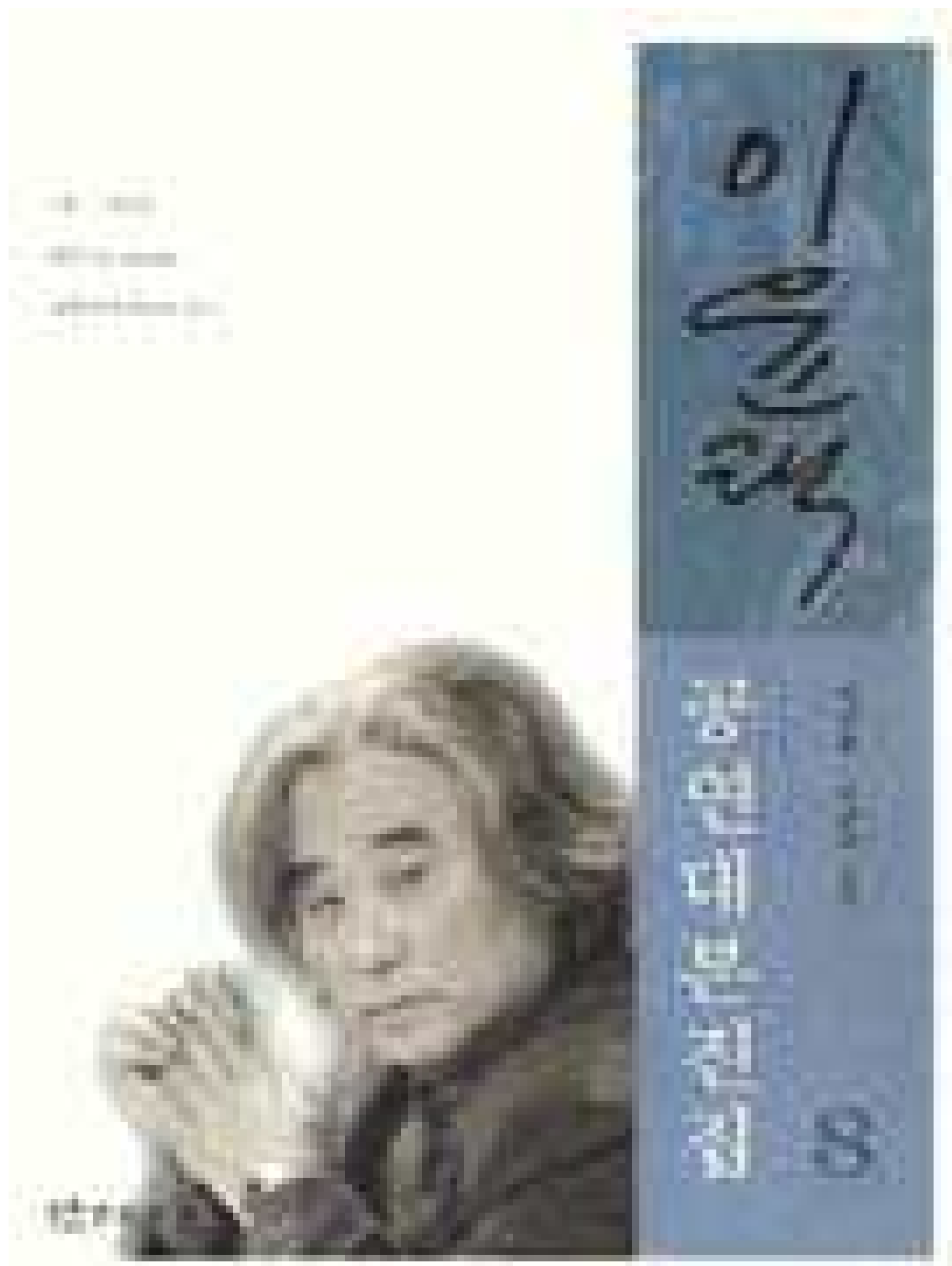
작가 서문

<이운택공연대본전집>이 만들어지기까지

파우스트

눈물의 여왕

옛 이야기의 부활 - 이철우



01
The Little Prince
Antoine de Saint-Exupéry

01
The Little Prince
Antoine de Saint-Exupéry

목차

작가 서문

<이윤택공연대본전집>이 만들어지기까지

나는 누구냐

태풍(THE TEMPEST)

광화문에서(원제: 일식)

세상을 밝히는 사람들 - 김남석

10

10/10/10

10/10/10

10



10/10/10

10/10/10

10/10/10

10/10/10

10/10/10

10/10/10

10/10/10

목차

작가 서문

<이윤택공연대본전집>이 만들어지기까지

가시밭의 한 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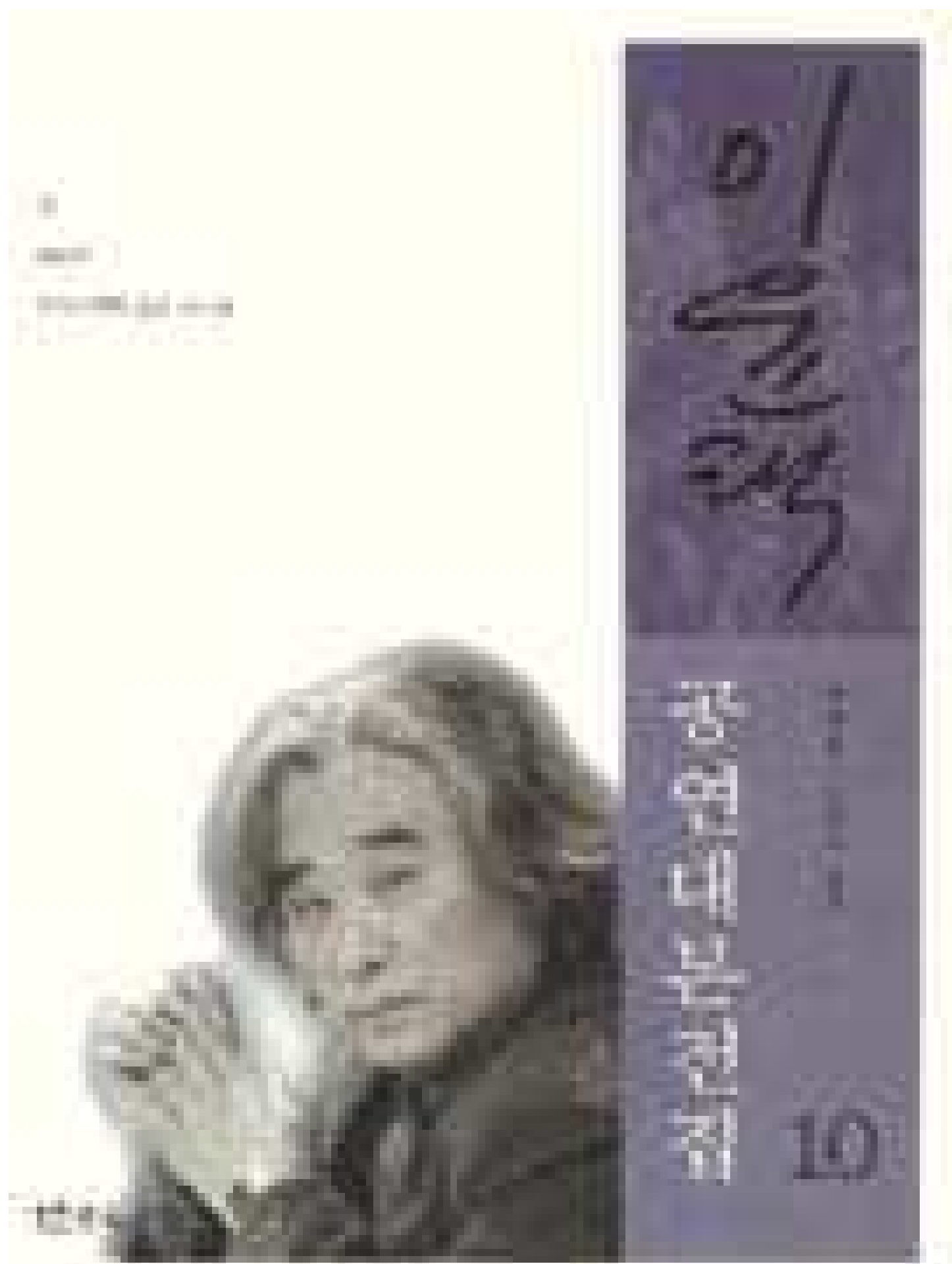
도솔가-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시골선비 조남명

오이디푸스

유랑극단

이윤택의 작품세계 - 장원재



© 2000
The Garden
The Garden
The Garden

0/1
2000
2000
2000
2000

THE GARDEN
10

목차

작가 서문

<이윤택공연대본전집>이 만들어지기까지
길

예도적

억척어멈과 그의 자식들

창작과 재구성의 차이 - 김남석